

두 빛 나 래

장애인의 평생을 함께하는 최고의 전문 치과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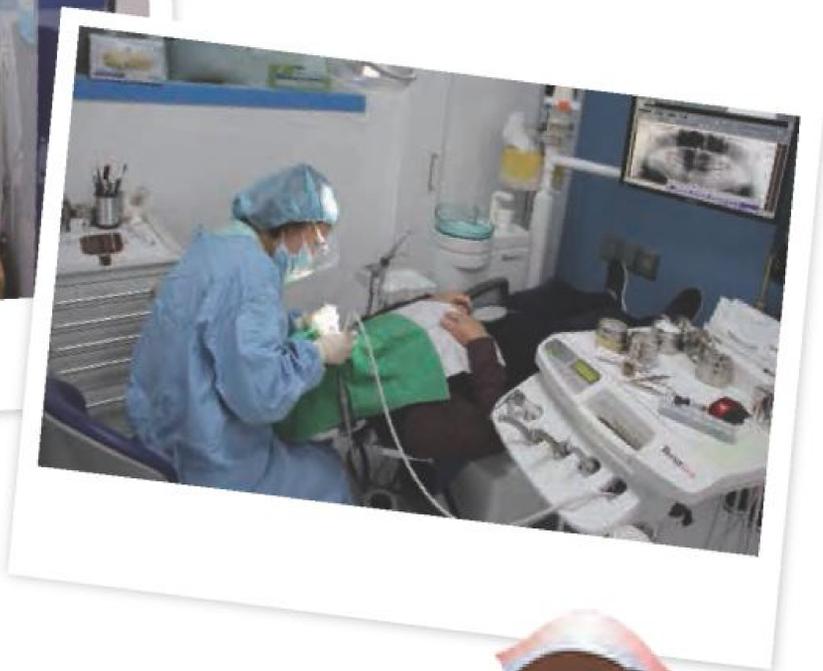
‘두빛나래’는 ‘두 개의 빛나는 날개’라는 뜻의 아름다운 우리말이며, 병원과 환자가 함께 어울려 빛나는 날개를 펼쳐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의미입니다.



표지이야기 : 병원 내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집행 중인 작품으로 남미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표현한 전시물입니다.

사진 : 서울의료재단 김철준 이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치과위생팀을 소개합니다.



치과위생사

치과위생사는 치과 진료협조 및 경영관리를 지원하며, 지역주민과 치과 질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예방치과처치 등을 통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의 일익을 담당하는 전문 직업입니다. 특히 장애인 구강보건 관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기본 업무에서 나아가 환자별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구강보건관리

장애인 구강보건관리에서
치과위생사는 환자의 직접적인 처치
이외에도 환자의 보호자, 시설
담당자를 교육함으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가
관리뿐만 아니라 가정, 시설 관리
또한 장애인구강관리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장애인 구강보건관리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의 치과위생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의 치과위생사는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가장 많이 나누는 직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환자분들이 진료를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진료준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환자분들 곁에는 치과위생사 선생님들이 항상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에는 17명의 치과위생사가 10개의 진료실에서 진료협조업무, 예방 처치업무, 구강 보건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진료실은 치과의사 1명, 치과위생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에서의 치과진료는 일반적인 치과진료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 예시를 소개하자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케일링조차도 환자분들의 건강상태와 협조도에 따라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또한 협조도에 따라 안전한 진료를 위하여 4~5명의 인원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직접적인 치과 진료 외적인 부분에서는 치과 방문을 두려워하는 환자에게 주기적인 내원을 통하여 치과라는 장소가 두렵거나 무서운 곳이 아닌, 구강건강을 위한 친근하고 다가가기 쉬운 장소임을 알려주는 구강보건교육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내·외의 세미나와 보수교육으로 치의학계의 발전을 꾀하며, 항상 환자분들에게 필요한 진료, 그리고 진료 외적인 부분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의 치과위생팀은 언제나 환자분들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노력하며 발전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치과위생팀 일동 -



"장애이들에게 건강한 치아, 행복한 미소를"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보 두빛나라 2018년 vol. 3호

발행인	금기연
발행처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발행일	2018년 10월 31일
편집인	김운평
홍보위원회 위원장	김운평
위원	김인선, 민경민, 전소희, 박성욱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07 (홍익동)
전화	02-2282-0001, 0012
홈페이지	www.sdh.go.kr
기획 · 취재	이동현
디자인 · 인쇄	삼보인쇄사

CONTENTS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보
두빛나래

1. 뉴스 포커스

뉴스 포커스 01	06
뉴스 포커스 02	07
뉴스 포커스 03	08
뉴스 포커스 04	09

2. 인터뷰

2018년 치료비 지원 사업(Save the Children)	10
하얀별이 거리 캠페인을 끝마치고	12

3. 맛집 코너

왕십리 제일곱창	14
연안식당 왕십리점	15

4. 문화 코너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	16
어벤져스 : 인피니티 워(Avengers : Infinity War, 2018)	17
냉면 이야기	18

5. 구강건강상식

19

6. 병원 인턴 소감문

22

7. 2018년 상반기 친절 직원

24

8. 2018년 상반기 아름다운 사람들

25

9. 공공의료사업 소개

장애인 치과 이동진료 사업	26
장애인 구강보건 교육 사업	27
장애인 치과 치료비 지원 사업	29
지역사회 연계 사업	29

10. 병원 비전

30

11. 후원 안내 및 병원 층별 안내

31

NEWS FOCUS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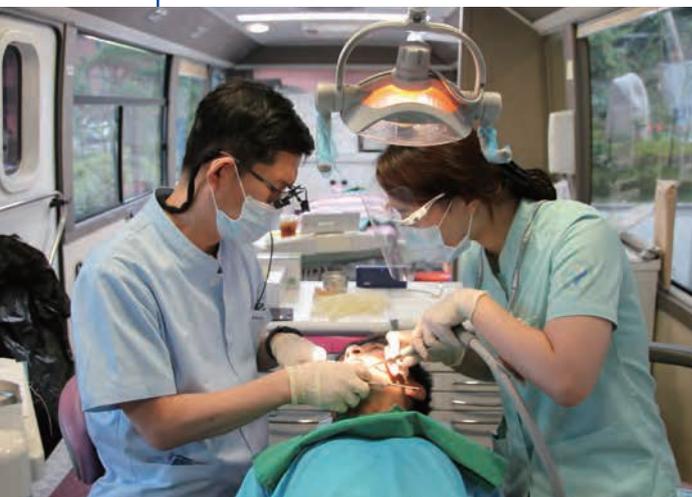
'찾아가는 장애인치과 이동진료사업' 10번째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병원장 금기연)에서 치과진료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행 중인 '찾아가는 장애인치과 이동진료사업'이 올해로 10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2008년 발대식 이후 그 다음해인 2009년부터 첫발을 내디딘 '찾아가는 장애인치과 이동진료사업'은 45인승 대형버스를 특수 제작하여 이동치과 진료버스를 만들었고, 버스 안에 치과진료실 공간을 구획하였다. 차량 내부에는 유니트 체어 2대, 포터블 X-ray, 자외선소독기, 콤프레샤, 석션 등의 의료장비와 치주기구, 알콜솜, 교합지 등이 정돈된 서랍장이 있으며 차량 외부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하여 장애인환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치과치료를 받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로 10년째 운영 중인 이동진료사업은 서울시 특수학교, 정신병원, 서울시 소재/산하 장애인 시설 등 서울시 전역을 돌아다니며 단순 검진 뿐 아니라 아닌 구강진료, 보철, 스케일링, 불소도포 등 실질적인 맞춤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장애인 기관 및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18년도에는 결손 된 치아로 인해 저작, 심미, 발음이 어렵고 집중치료를 요하는 중.장년층 장애인에게 치아 기능회복 및 전신건강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며 주6~7회 운영을 통해 연간 270회, 15,500여명의 장애인 환자를 치료할 계획이다.



NEWS FOCUS 02

어버이날 카네이션 증정 행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병원장 금기연)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내원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카네이션 증정 행사를 마련했다.

카네이션 증정행사는 지난 2017년도부터 시행하여 올해로 2번째 맞는 행사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버이날의 의미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구강질환으로 고통 받는 장애인 환자들에게 쾌유와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 날 행사에서 병원 직원들은 내원한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랑의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리며 가정의 평화와 건강을 기원하고 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금기연 병원장은 “어버이날 카네이션 증정행사를 통해 내원객들의 쾌유를 빌고 가족 사랑의 의미와 희망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은 장애인전문 치과병원으로서 장애인 환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병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EWS FOCUS 03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춘계 워크숍 개최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병원장 금기연)은 조직 활성화 및 직원 사기증진, 병원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 등을 목적으로 지난 5월 25일(금)부터 26일(토), 1박 2일 간 경기도 가평군 소재의 '좋은 아침 연수원'에서 전 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전 직원 워크숍에서는 체육대회와 분임토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생의 발전을 도모하여 앞으로의 병원발전을 위한 전략과제와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변화하고 있는 의료계의 동향 파악 및 고객만족도 향상, 경영효율성 증대, 직원 복지 향상 등 병원의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금기연 병원장은 "그 동안 전 직원 모두 각자 맡은 자리에서 환자 진료와 병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줘서 감사하다"라며 "여러분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병원에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전 직원 워크숍을 통해 병원 운영의 새로운 변화와 공감대를 형성할 뿐 아니라 직원 간 활발한 소통으로 직원 단합을 도모하여 즐거운 직장생활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NEWS FOCUS 04

제4회 구강질환 예방의식 함양사업 「하얀별이 거리 캠페인」 성료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병원장 금기연)은 지난 6월 23일(토) 왕십리역 분수광장에서 장애인 구강질환 예방의식 함양사업의 일환인 '하얀별이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2015년도부터 시행하여 올해 4회를 맞이한 '하얀별이' 캠페인은 하얀색의 깨끗함과 반짝이는 별의 의미를 더하여 건강한 치아를 의인화한 '하얀별이' 마스크트를 내세워 치과 방문을 꺼리는 사람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주며 높은 참여를 이끌고 있다.

이 날의 캠페인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하얀별이 캠페인을 홍보하고, 하얀별이를 통해 구강질환의 예방 및 올바른 치아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함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의 주최로 성동구 보건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시회의 협력 하에 진행된 '제4회 하얀별이 거리 캠페인'은 ▲무료 구강검진 ▲구강건강 체험교실 ▲반짝반짝 치아 만들기 ▲하얀별이 이벤트존 ▲하얀별이 스탬프 투어 등 총 15개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참여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고취시켰다.



2018년 치료비 지원 사업 (Save the Children) 선정자 STORY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최00의 엄마입니다. 저에게는 사랑스럽고 소중한 세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두 아이는 각각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저의 둘째 아들은 출생 당시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지만, 3세 즈음이었을까요? 갑자기 호흡곤란증세와 경련을 일으켜 서둘러 대학병원으로 데려갔지만 결국 지적장애 1급을 판정받았습니다. 장애를 가진 두 아들, 그리고 아직 어린 막내딸을 돌보며 저 역시 건강을 많이 잃었지만 저의 세아이들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는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구강관리도 쉽지 않았던 탓에 치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동네 병원에서 어떻게든 치과 치료를 받아보려고 했지만 워낙 힘이 세고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던 중 아이가 다니는 학교 학부모들을 통해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치과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는 병원 정문 앞에서부터 격렬한 반응을 보여 진료실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큰 난관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이의 팔다리를 잡고 유닛 체어에 묶어가며 어렵게 검진을 했으나 더 이상의 치료는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담당 의사선생님께서 아이의 안전을 위해 전신마취 하 치과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 또 다시 치료를 포기해야 하나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가 이전에도 전신마취를 해본 경험이 있지만, 아이를 수술대에 올리면 마음이 편한 부모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이런 저런 생각들로 고민하던 중 치과위생사 선생님께서 병원에 있는 의료사회복지사 선생님과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아이를 위해 꼭 치과치료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에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 선생님과 간단하게 면담을 했고, 마침 올해부터 ‘세이브 더 칠드런(재단명)’과 협약을 맺고 진행되는 지원 사업이 새로 시작되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서류도 복잡하지 않아 들뜬 마음으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었고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기다린 끝에 선정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제 아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받아 두 차례에 걸쳐 전신마취 하 치과치료를 받았고 아이의 구강상태는 이전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아이가 그동안 이가 아파도 표현을 하지 못해 엄마와 학교 선생님들을 때리고 꼬집고, 심지어는 옷을 찢어버리는 등 과격한 행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치과치료를 받은 후에는 집에서는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공격적인 성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과격한 행동을 자주 할 정도로 스스로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지 상상하면 엄마로서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무엇보다 정성을 다해 치료를 해주신 황영혜 치과의사 선생님 이하 치과위생사 및 의료사회복지사 선생님께 저희 아이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처럼 장애가정에 경제적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SDHD

인터뷰

Interview



하얀 별이
White Teeth



'하얀별이 거리 캠페인' 을 끝마치고...

2018.06.28. 왕십리 분수광장에서 진행된 2018 장애인 구강질환 예방의식 함양사업 '하얀별이 거리 캠페인' 에 함께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 오보경 회장님의 인터뷰입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982년 설립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이하 서울시회)는 국민의 구강건강증진과 치과위생사의 권익향상, 복리증진, 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만 여명의 회원들이 국민의 구강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한 치과위생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며 소통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회는 치과위생사 회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회원들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교육사업과 지역분회를 활성화하여 국민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교육과 진료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회는 보건의료전문인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치과위생사로서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치과위생사는 국가시험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후 치과병(의)원, 종합병원, 보건(지)소, 교육기관, 산업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부분의 치과위생사가 치과 병(의)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최적의 구강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한 치위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요구도가 증가하면서 치과위생사들은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진료, 대상자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민구강보건홍보, 구강보건정책제안, 취약계층의 업무협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관, 어린이집, 노인복지기관, 군부대 등을 통해 구강보건교육과 구강보건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외된 이웃을 찾아 진료봉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얀별이 캠페인은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에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들 치과위생사 회원을 통해 장애인 구강질환 예방의식 함양사업 “하얀별이 거리 캠페인”을 소개 받았고 국민구강건강 증진향상을 위한 봉사과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서울시회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일치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얀별이 캠페인을 진행하시면서 기억에 남은 순간이 있으셨나요?

낯시로 치아에 좋은 음식 고르기 게임에 즐겁게 참여했던 아빠와 딸, 치아건강 주사위 놀이와 충치타파게임에 즐겁게 참여했던 외국인과 장애인 대상자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지난여름, 서울시회 치과위생사 임원인 엄마를 따라 나온 아들이 심심해서 하루 종일 투정부리던 순간 광장 뒤편의 분수대가 가동되고 그 투정은 분수대에 뛰어들며 환호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린 아들과 동네 꼬마들, 자원봉사자들은 순식간에 흠뻑 젖어 버렸고, 갈아입을 옷을 준비 못한 엄마의 난감한 표정과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채 방문객의 구강검사를 하시던 치과의사 선생님의 만개한 웃음은 왕십리광장의 평화로운 오후의 일상은 올해 하얀별이캠페인에서 잊지 못할 순간입니다.



하얀별이 캠페인에 함께하신 소감을 이야기 해주세요.

먼저 치과위생사로서 하얀별이 캠페인이라는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매년 행사 때마다 구강건강관련 행사 및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하여 축제의 장을 마련하시는 것을 보고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또한 여러 곳에서 의미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시는 걸 보고 진솔한 나눔을 실천하신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회와 하얀별이 캠페인의 지속적인 연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왕십리 제일곱창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익동 131-1
- 전화 : 02-2281-9792
- 영업시간 : 16:00 ~ 재료 소진 시까지 / 일요일 휴무
- 메뉴 : 한우곱창... 19,000원, 한우대창... 19,000원
양깃머리... 23,000원, 모듬구이... 49,000원

왕십리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곱창이다. 서울 황학동에 있던 곱창집들이 재개발로 인해 이동하면서 지금의 왕십리 곱창골목이 생겨났다.

MBC '나혼자산다'에서 화사가 보여준 곱창먹방으로 요즘 왕십리 곱창골목은 연일 곱창대란 중이다. 그 중 최근 곱창 골목에 나타났지만 어마어마한 비주얼로 압도하는 왕십리 제일곱창이 인기다. SNS에서 #화사효과를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맛집으로 대기 손님도 많다. 특이하게 대기표 대신 대기주걱을 나눠주는데 번호별로 써진 멘트가 달라 소소한 재미를 준다.

제일곱창 메뉴로는 한우곱창, 한우대창, 양깃머리와 이를 골고루 즐길 수 있는 모듬구이가 있다. 하지만 요즘 곱창대란으로 곱창만 주문은 불가하다. 주문하면 강력한 화덕에서 초벌한 뒤 자리로 가져다주는데, 그동안 해물곱창순두부찌개를 먼저 서빙 해준다. 이 찌개가 제일곱창의 별미로, 술이 술술 들어가는 기적을 볼 수 있다.

취기가 오를 때쯤 초벌한 곱창이 나오는데, 돌돌 말려있는 곱창과 곱이 가득한 통통한 대창의 폭발적인 비주얼은 카메라를 들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아름다웠던 곱창의 자태를 사진으로 기록하면, 직원이 직접 더 굵고 잘라주니 손님은 그저 주는 대로 열심히 먹기만 하면 된다. 특히 밀반찬으로 나오는 파김치를 함께 익혀 특제 소스에 찍어 한입 넣으면 제일곱창 제일 맛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마장 축산물 시장에서 당일 도축한 재료만 사용하여 신선한 곱창을 즐길 수 있으며 시설도 깔끔하여 여성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단, 추가적으로 곱창 주문은 불가하여 초반 주문에 양을 넉넉히 시켜야 한다. 아시다시피 곱창은 양이 적으므로 많이 시켜도 괜찮다. 양이 부족하다면 볶음밥을 많이 시킬 것! 하지만 부족하지 않아도 마무리는 볶음밥으로 해야 진정한 한국인이니 볶음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위치는 왕십리역 2번 출구에서 100m 거리에 있으며, 주차장은 따로 없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자.

[작성사 : 치과위생팀 김란희]

맛집코너

연안식당 왕십리점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410 센트라스 L동 1층 132호
- 전화: 02-2295-0833
- 영업시간: 매일 11:00 ~ 23:00
- 메뉴: 꼬막비빔밥... 11,000원, 해물뚝배기... 11,000원
산해진미 해물탕... 37,000원



2호선 상왕십리역 센트라스에 있는 연안식당 왕십리점은 평일 6시 이후이면 벌써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인산인해를 이룬다. 붐비는 저녁시간 이전에 미리 도착할 수 있다면 기다릴 필요 없이 빈 좌석에 앉아 여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다. 들어오자마자 인천 부닷가에 들어간 듯한 바다향기가 느껴진다. 주 메뉴는 꼬막비빔밥이며, 그 외에 해물뚝배기와 산해진미 해물탕, 밴댕이 회 무침, 해물파전이 준비되어 있다. 맛도 좋고 영양가도 많은 꼬막은 폭염에 지쳐 무기력한 몸을 회복시켜준다.

식당에서 직접 짠 참기름이 벌교 새꼬막과 조화를 이루어낸다. 숙성 간장 베이스로 간을 하고 쪽파와 고춧가루 매운 고추를 잘라 버무린 꼬막비빔밥이 보기 좋게 접시에 담겨 나온다. 정갈하게 담긴 고슬고슬한 밥 위에 검은개가 살짝 뿌려져있는데, 그 위에 연안식당만의 특제 참기름을 넣어주고 접시에 담아 꼬막과 함께 버무리면 밥도둑이 따로 없다.

밑반찬은 정말 깔끔했다. 특히 간장게장은 한입에 넣기 좋은 크기로 잘라져있다. 낙지와 전복, 백합과 새우, 미나리, 콩나물이 들어간 해물뚝배기는 담백하고 개운한 맛을 낸다.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식당이니 발걸음을 조금만 서둘러주자. 무더위를 견뎌낸 모두에게 기분 좋은 초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추천한다.



[작성사: 공공의료사업단 박경우]



문화코너 01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

서울 강남의 핫플레이스인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은 보는 순간 참 정겨우면서도 화려하다는 느낌이 든다. 2호선 삼성역 5번 출구를 통하면 누구나 책을 꺼내어 볼 수 있는 개방형 도서관인 별마당 도서관으로 갈 수 있다. 주말이나 저녁 시간 때는 조금 혼잡하다는 느낌도 없지는 않지만 요즘은 만남의 장소로도 많이 선호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내부는 복층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 더욱 높고 시원한 기분을 들게 한다.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장소는 조용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하는 또 다른 느낌의 새로운 복합문화 공간이다. 책을 읽는 사람, 커피를 마시는 사람, 쇼핑을 하는 사람 등 다양한 목적으로 코엑스를 방문한 사람들이 한번쯤 둘러보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이곳은 만남의 장소로 여기저기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책과 잡지로 가득하니 잠시 앉아 쉴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는데다가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휴대폰 충전, 노트북 등을 사용 할 수 있다. 가끔은 특강이나 컬처클럽, 도서관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진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시간 맞춰서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코엑스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맛집도 많이 있다 보니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은 화려하고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 때문에 오늘같이 비오는 날에 찾아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비오는 날 가인과 함께 책을 읽는다는 것은 요즘같이 디지털 홍수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뭔가 낭만적이고 여유로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별마당 도서관 주변에 많은 식당과 각종 문화시설이 있어서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다.

[주변 편의시설]

아쿠아리움, 영화관(메가박스), 서점(반디 앤 루니스), 피부관리 및 마사지 숍(타이디엔...), 다양한 먹거리(한식, 양식, 중식, 일식, 커피전문점, 각종 패스트푸드점, 디저트전문점), 각종 악세사리숍, 캐릭터숍(마블, 카카오프렌즈) 등

[작성자 : 보건팀 박성욱]





문화코너 02

어벤져스 : 인피니티 워 (Avengers : Infinity War, 2018)

[줄거리]

새로운 조합을 이룬 어벤져스, 역대 최강 빌런 타노스에 맞서 세계의 운명이 걸린 인피니티 스톤을 향한 무한 대결이 펼쳐진다!

마블의 히어로 시리즈와 어벤져스 시리즈를 모두 보아서, 이 어벤져스 : 인피니티 워 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이건 꼭 봐야해.' 라는 생각을 했다. 인터넷에서도 어벤져스에 대한 호평이 일색 하였고, 줄거리나 결말에 대한 비밀을 지키려는 모습에 더욱 기대감이 생겼다. 드디어 영화가 개봉된 주 기대를 가득 품고서 설레는 마음으로 영화관을 향했다. 관람 전의 기대감은 영화를 보고 난 후 즐거움으로 바뀌었다.

역시 마블(어벤져스 제작 스튜디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스케일과 풍부한 세계관, 그리고 여러 히어로가 나온 작품들을 한 영화 속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 지가 보이는 작품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영화 영상의 색감, CG 또한 화려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다. 그 전 어벤져스 시리즈를 보았다면 세계관 이해가 조금 더 쉽게 되겠지만, 보지 않았어도 큰 불편이 없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벤져스 : 인피니티 워와 이어지는 내용인 어벤져스 4가 내년엔 나온다고 한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것 같지만, 그때도 병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작성사 : 치과위생팀 양정훈]

냉면 이야기

연일 ‘폭염주의보’, ‘초열대야’ 을 여름을 표현한 단어이다. 이런 더운 여름이면 더욱 생각나는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시원한 국물 속에 면, 고명이라는 단순함 속에 담긴 오묘한 맛... 비록 단순한 구성이지만 그 단순함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맛은 오랫동안 사랑 받아온 우리의 음식이다. 그 차가운 냉면의 담긴 재미난 이야기를 모아보았다.



1. 냉면의 기원은?

고려시대부터 꾸준히 문헌에 나오고는 있었지만(아마도 이때부터 먹기는 했으나 보급이다), 공식적인 문인이 직접 글을 올린 것은 17세기 우의정을 지내신 장유의 계곡집에서 처음 나왔으며, 정약용의 글과 동국세시기 같은 문헌에도 소개되고 있다. 또한 조선의 왕들도 냉면을 즐긴 모습이 실록 곳곳에 나오는데 19대 왕인 숙종, 23대 순조부터 24대 현종, 25대 철종, 26대 고종 모두 냉면을 좋아했다 한다. 특히 철종은 냉면을 너무 즐기다 며칠 동안 채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어린 임금 순조는 당직 군관이 돼지고기를 사와 혼자 냉면을 시켜 곁들여 먹는 모습에 빠진 일화도 있다.

2. 냉면은 원래 겨울 음식이었다?

냉면은 추운 겨울 온돌방에서 이불 뒤집어쓰고 먹었던 음식이라고 한다. 메밀의 제철이 겨울이고 또 육수의 베이스가 동치미국물로 이루어진 것으로 겨울 음식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 외 동국세시기 등 여러 문헌에서도 겨울의 주로 먹었다라는 기술이 보이는 점이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할 수 있다.

3. 배달 음식의 원조?

어린 임금 순조는 밤에 당직 군관들과 냉면을 시켜 먹는 것을 즐겼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통해 조선 후기에도 냉면은 배달되었던 것 같다. 1920년경 경성으로 진출한 평양냉면은 배달음식으로 사랑받았다.

그 당시 평양냉면을 배달하던 사람들을 ‘중머리’라고 불렀는데 한손에는 20여그릇의 냉면이 올라간 목판을 들고 한손으로 자전거를 타고 배달했다고 한다.

4. 냉면의 양대 산맥은?

현재 우리는 냉면하면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을 생각한다. 하지만 많은 음식 전문가들은 원래 양대 냉면은 진주냉면과 평양냉면이라고 한다. 진주냉면은 양반들의 야식으로 즐겨 먹었던 냉면으로 1849년에 간행된 동국세시기에 나올 정도로 그 명성이 탁월하였다.

특히 조선시대의 진주지역의 양반가와 기방에서 한량들이 기생들과 어울려 질펀하게 술판을 벌인 후 선주후면(先酒後麵)의 식사법에 따라 입가심으로 즐겨먹던 고급 음식이었다. 하지만 1966년 중앙시장 대화재를 기점으로 진주냉면의 명맥은 완전히 끊겼다가 최근 그 맛을 복원해서 진주와 사천, 부산 인근에서 그 맛을 이어오고 있다.

평양냉면은 메밀가루를 익반죽하여 냉면들에 눌러서 국수를 빼내어 바로 삶아 먹는 것으로 눌러서 만드는 압출면(압착면)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5. 함흥냉면은 원래 냉면이라 불리지 않았다.

함흥냉면은 원래 ‘농마국수’라 불렸다. 이는 녹말가루로 면을 만들어 차가운 육수에 말아 먹어서 유래된 이름이다. 또 회와 양념장으로 비벼먹는 ‘회국수’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이후 함흥 출신들이 한국 전쟁 피난민들이 속초, 서울, 부산을 중심으로 고향음식을 팔면서 ‘함흥냉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다.

6.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의 차이

평양냉면은 메밀가루를 익반죽하여 국수들에 넣고 눌러서 국수를 뽑아내 바로 삶아 먹는 것으로, 눌러서 만드는 압출면(압착면)의 대표적인 음식이다. 이렇게 뽑아낸 면에 편육, 오이, 배, 삶은 달걀 등을 곁들여 올려주고, 국물로는 쇠고기, 닭고기, 꿩고기 중에서 하나를 골라 끓인 육수를 차게 만들어 쓰거나, 동치미 국물을 사용한다. 여기에 식초와 겨자를 곁들여 먹는 냉면이 바로 평양냉면이다. 함흥냉면은 함경도지방에서 많이 생산되는 감자녹말로 매우 질긴 국수를 만들고(이점이 메밀을 원료로 한 평양 물냉면과 가장 큰 차이이다), 여기에 함흥지방 바닷가에서 잡히는 신선한 가자미로 회를 떠 고추장으로 양념한 후 국수에 얹어 매콤하게 비벼 먹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 전쟁이후 월남민에 의해 남쪽 지방에도 함흥냉면이 알려졌고, 감자녹말 대신 고구마 녹말로, 가자미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홍어회로 바뀌게 됐다. 이 함흥냉면은 유독 매운 것이 특징이다.

이제는 세계절음식을 사랑받고 있는 냉면 그 담백한 육수 속에 또는 매콤한 양념장 속에 담겨있는 재미있는 이야기...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직후 평화의 상징으로 등극한 평양냉면!!! 글을 마무리하면서 입에서 맴도는 노래가사 한 구절이 생각난다.

맛좋은 냉면이 여기 있소~♪

값싸고 달콤한 냉면이오~♪

냉면국물 더 주시오~♪

아이구나 맛좋다~♪~♪

[작성자 : 보닛팀 박성욱]

구강건강 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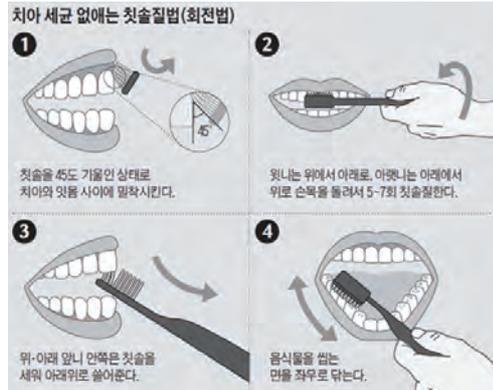
건치(健齒:건강한 치아)를 만드는 생활습관

칫솔은 2~3개월에 한 번 교체하세요.



성인의 평균 칫솔질 횟수는 1일 2~3회인데요 2~3개월이면 칫솔모가 벌어져 세정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칫솔을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연령이나 치아 크기를 고려해 칫솔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신의 치아 상태와 맞지 않는 칫솔이 이를 마모시키거나 사이사이에 낀 치석 제거가 되지 않아 치석이 쌓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지요.

올바른 칫솔질로 구강 관리하세요.



좌우 옆 방향으로 칫솔질을 하는 습관은 잇몸 사이의 치아 면을 패이게 할 수 있어 좋지 않은데요.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윗니는 위에서 아래로 회전하듯 닦아주어야 치석제거에 효과가 있습니다.

치실을 사용해 끼인 음식물을 빼주세요.



칫솔질을 하는 것만으로는 이와 이 사이에 낀 음식물을 제대로 뺄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치실을 사용해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것은 치아 사이를 넓게 만들기 때문에 더 음식물이 자주 끼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꼭 치실을 사용해주세요.

6개월에 한 번은 꼭 정기적인 검진으로 관리하세요.



6개월의 한 번은 치과에서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치아에 통증이 느껴지거나 문제가 발생했다고 알아차리는 시점에서는 이미 늦기 때문에 아프기 전에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검진을 받고, 치아 곳곳에 쌓인 치석과 프라그를 제거하는 스케일링으로 치아를 관리하세요.

[작성자 : 치과위생팀 전소희]

구강건강 상식

다함께 건치(健齒:건강한 치아) 지수를 평가해봐요!



건치지수는 구강건강상태와 구강보건상식 및 구강관리습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자신의 현재 구강환경에 대한 관리능력을 점수로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또한, 자신의 점수를 계산하는 과정에 올바른 구강보건상식과 구강 관리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강건강에 관심을 기울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구강질환을 치료하고 바르게 관리할 경우 건치지수는 점차 증가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강건강지수(건치지수)는 몇 점인지 알아볼까요?

✓ 아래 질문에 대해 (YES or NO) 로 표시한 후 점수를 합산해 보세요.

1. 수돗물에 불소를 넣으면 충치가 예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YES / NO)
2.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선택하여 쓴다. (YES / NO)
3. 칫솔질을 3분 이상하고, 잇몸, 혀까지 닦아준다. (YES / NO)
4. 칫솔질은 식후와 잠들기 전에 한다. (YES / NO)
5.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구강검사 시 치석제거(스케일링)를 한다. (YES / NO)
6. 이가 아프면 약국보다 치과에 먼저 간다. (YES / NO)
7. 입에서 냄새가 나거나, 칫솔질을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난다. (YES / NO)
8. 오른쪽이나 왼쪽 한쪽으로 식사한다. (YES / NO)
9. 입안에 치료를 받아야 할 충치(치아우식증)가 있다. (YES / NO)
10. 입안에 이 빠진 자리가 방치되어 있다. (YES / NO)
11. 수돗물 불소 넣기 사업이 11개 지역에서 25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YES / NO)
12. 아이들은 우유병을 물린 채 재워서는 안 된다. (YES / NO)
13. 치석은 칫솔질로는 제거가 안 되며, 치과에서 해야 한다. (YES / NO)
14. 잇몸병(치주질환)은 약으로 고칠 수 있다. (YES / NO)
15.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가 약해진다. (YES / NO)
16. 아이들의 유치는 갈 것이므로 치료할 필요가 없다. (YES / NO)

나의 구강상태는 어떨까요?

80점 이상

평상시 구강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자랑 할 만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계속 깨끗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시면, 별 이상 없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60 ~ 79점 사이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계시군요. 일반적 치과 상식이나 구강건강 지식에 좀 더 관심을 갖으시고, 아는 것과 행동이 일치되도록 노력하세요. 그리고 치과에 꼭 정기적으로 다니시면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건강한 구강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40 ~ 59점 사이

스스로는 현재 구강상태에 별 불만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냥 두면 시기를 놓쳐 구강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치과에서 상담하시고,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법을 배우세요. 정기적인 구강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39점 이하

건강한 잇몸과 치아가 중요한 소화기관이라는 인식이 요구되는 점수입니다. 치아가 부실하면 많은 장애를 가져오지요. 소화가 안 됨은 물론 상대가 입 냄새를 맡을까 크게 웃지도 못하고, 얼굴을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치과에 들러 치료를 받으세요. 이 점수라면 60세 이후 틀니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한 치아로 건강한 삶을 즐기세요.

[작성자 : 치과위생팀 전소희]

점수 합산방법

- ✓ 1 ~ 6번 : YES (각 7점) / NO (각 0점)
- ✓ 7 ~ 10번 : YES (각 0점) / NO (각 7점)
- ✓ 11 ~ 13번 : YES (각 5점) / NO (각 0점)
- ✓ 14 ~ 16번 : YES (각 0점) / NO (각 5점)





병원 인턴 소감문 1



●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이아름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생 이아름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에서 서브인턴을 시작하는 첫날,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환자의 얼굴만 보고도 이름과 상태 등을 다 기억하여 안부를 묻는 김인선 선생님과 치과위생사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환자와 소통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환자들은 병원을 단순히 진료만 받는 곳이 아닌 친절할 말동무가 있는 따뜻한 공간이라고 느끼고 있었고 이에 대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진료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때는 실생활에 빗대어 설명하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임플란트를 자동차에 빗대어 여러 작은 구조물들이 모여 복잡한 자동차를 이루듯이 임플란트도 여러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어 고장이 나기 쉬우니 세심한 관리를 기울여야 한다고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문혜 장애인 요양원으로 이동진료를 나갔을 당시 이동진료팀을 이끄신 이은영 공공의료사업단장님의 리더십과 직업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료 기획과 인력 배치 및 역할 분담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진료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앞으로 치과의사로서 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해안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동진료 당시 무척 더운 날씨여서 힘이 들었지만 모두 함께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진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후에 이동진료봉사의 기회가 있을 때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에서 약 2주간 실습을 하면서 병원의 시설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전신의 신체적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전신마취 프로그램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험도가 큰 장애인

환자의 치료 중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숙련된 경험의 의료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병원 내부는 휠체어로 이동하기에 충분히 넓은 이동통로가 있고 경사로나 턱이 전혀 없어 장애인 환자의 이동이 편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밝은 색상으로 꾸며져 있는 진료실 또한 산뜻한 분위기를 주어 환자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용 의자와 테이블이 연결되어있지 않고 분리되어 있어 응급상황에서 바로 환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교차 감염에 대비한 철저한 위생관리 역시 기억에 남습니다. 감염성 질환 환자 진료에 의료진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진료가 끝난 후에도 혹시 모를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의료장비 관리 및 폐기물 처리가 이루어지는 모습에서 감염 예방 매뉴얼에 대해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제약이 큰 취약계층을 위해 치과진료의 문턱을 낮춘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은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나라 공공의료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진료에 헌신하는 의료진의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고 2주의 짧은 기간이지만 병원의 한 일원으로서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치과의사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진료에 임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작성자: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이아름]

병원 인턴 소감문 2



전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성민아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성민아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인턴 실습을 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에서 인턴실습을 하는 동안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병원 내에 위치한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장애인 환자를 진료한 적은 있으나 이렇게 큰 규모의 장애인 전문치과병원에서 실습을 하면서 다양한 장애를 가진 환자들을 접할 수 있어 저에게는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진료부 선생님들과 치과위생사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장애를 가진 환자들을 각각 상황에 맞게 컨트롤하고 진료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담당치과 의사 선생님과 치과위생사 선생님들이 최고의 한 팀이 되어 환자께 최상의 진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이 옆에서 너무나도 잘 느껴졌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를 진료할 경우에는 직접 수화를 사용하여 환자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환자가 진료를 두려워할 때는 차분히 설명하면서 환자가 스스로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를 배려하고 신뢰감을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저도 미래의 치과 의사로서 환자께 최고의

진료뿐만 아니라 믿음을 줄 수 있는 치과 의사로 성장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술식 중에도 중간 중간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진료하는 모습을 보면서 환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다양한 술식을 관찰할 수 있었고 신규환자가 내원한 경우에는 가상의 치료계획을 머릿속에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술식이 끝나고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환자의 구강 상태에 대해 토론도 하고 궁금한 것들을 자유롭게 질문하면서 이전에 몰랐던 치의학 지식들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치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기 전에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실습하는 기간 동안 많은 것들을 지도해주신 진료부 선생님들께 감사하고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치과위생사 선생님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최고의 진료 제공 뿐 아니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치과 의사로 성장하겠습니다.

[작성자 : 전북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성민아]

2018년 상반기 친절 직원



Q&A.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4번 진료실 김인선 선생님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최유진입니다.

+ Q&A.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계십니까?

사실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은 손꼽을 수 없이 많지만 그 중 최근까지 오셨던 환자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무료틀니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던 환자분으로 이가 거의 없어서 이전에는 식사하기가 힘들었는데 틀니 제작 후 발음도 좋아지고 식사하기도 편하다고 기뻐하셨습니다.

+ 또한 본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연사업에도 꾸준히 참가한 후 건강도 좋아져 고맙다고 인사하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 Q&A. 친절직원으로 뽑힌 소감 부탁드립니다.

친절직원으로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치과위생사로 5년간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되는 순간이고 앞으로 근무를 함에 있어 큰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과 보호자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드릴 수 있는 친절한 치과위생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TRODUCTION 02

2018년 아름다운 사람들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암치료 환자들을 위한 손뜨개질로 모자를 만들고 계시는 김옥현환자님!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분입니다.



만삭의 몸으로 장애인 환자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유혜선 치과위생사 팀장님, 박혜진 치과위생사 선생님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고령의 연세에도 늘 장애인 환자들의 구강 건강을 걱정하시고 애쓰시는 안상규 교수님, 박순원 교수님 그 아름다운 모습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치과 이동진료 사업

서울시 산하/소재의 장애인유관시설로 찾아가는 장애인이동치과진료

+ 찾아가는 기관

(2018년 1월 ~ 6월 실적)

다솜주단기거주시설, 천애재활원, 사회복지법인SRC, 장애인내일키움직업교육센터, 빛가람장애인시설, 사랑의복지관, 함재보호작업장, 누야하우스, 태화샘솟는집, 은평기쁨의집, 라온클린패밀리, 은평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평화종합사회복지관, 굿잡자립, 성산푸른초장주단기거주시설, EM실천, 참사랑너나올주간보호, 동안 우리복지센터, 동문복지관,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희망의학교/하우스, 영등포구사랑나눔의집, 금천구장애인보호작업장, 가브리엘작업장, 모랫말꿈터, 꿈손단기보호/한마음주단기거주, 성동장애인직업훈련시설, 새생명의집, SRC보듬터, 우리마포복지관, 꿈터장애인주간보호센터, 마라보호작업장, 서울역나눔진료, 임마누엘집, 교남어유지동산, 용인정신병원, 중랑구직업재활센터, 동천장애인주간보호센터, 평화로운집, 성락주간보호센터, 구립동대문장애인복지관,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해맑은마음터,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맑은샘주단기거주, 누리학교, 파란마음복지센터, 그라나다보호작업센터, 서울삼성학교, 서울효정학교, 늘편한집, 은평대영학교, 대린원, 새생명장애인주간보호, 새롬학교, 은평보호작업장, 성동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서울정민학교, 서울애화학교, 서울정애학교, 용산구장애인의날, 연세대학교재활학교, 바오로교실보호작 학교, 수도사업장/주간보호시설,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늘푸른나무복지관, 한사랑장애영아원, 서울경운랑의학교,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다원학교, 한국구화학교, 구립강서구직업재활센터, 한사랑마을, 송천 한마음의집,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삼성소리샘복지관, 인강원보호작업장/주간보호, 아이비복지센터, 한빛맹학교, 바우피주간보호/우면장애인복지관, 교남학교, 심터요양원, 서울광진학교, 기원/꿈친주간보호센터, 서울정민학교, 효정비전타운, 국립서울농학교, 주몽학교, 한국육영학교, 다니엘학교, 참좋은센터, 하안별이캠페인,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강서구휴먼희망일터, 상계장애인주간보호센터, 동천 (총 96개소)

+ 진료 인원 : 7,177명

+ 출장 횟수 : 132회

서울시립병원 연합 나눔진료봉사단 활동 :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

+ 장소 : 서울역 광장

(2018년 1월 ~ 6월 실적)

+ 진료 인원(치과) : 150명

+ 출장 횟수 : 5회



장애인 구강보건 교육 사업

찾아가는 장애인구강보건교육

서울시 산하/소재의 장애인 유관시설로 찾아가는 구강보건교육

+ 찾아가는 기관

(2018년 1월 ~ 6월 실적)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 서울시립영등포복지관, 루디아의집, 심터요양원, 서울시장애인부모회, 안마수련원, 상계주간보호센터, 우리마포보호작업장, 성락주간보호센터, 마라주간보호시설, 동천일리하우스, 천애재활원, 바오로보호주간보호, 바오로주간보호작업장, 충현복지관, 암사재활원, 서울시립북부직업재활,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 한빛맹학교, 새생명의집, 인강원주간보호시설, 인강원보호작업장,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삼성소리샘복지관, 동안우리복지관, 관악구종합복지관, 마라보호작업장 (총 28개소)

+ 대상인원 : 858명

+ 출장횟수 : 28회



지역사회 장애인 계속구강관리사업 “성동건강START”

성동구 장애인 시설로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반복적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검진 실시

+ 찾아간 기관

(2018년 1월 ~ 6월 실적)

성모보호작업장, 성모주간보호센터,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동부데이케어센터, 성동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총 5개소)

+ 대상인원 : 831명

+ 출장횟수 : 26회

특수학교 학부모 교육

서울시 산하/소재의 특수학교 학부모에게 구강보건교육

+ 찾아간 기관

(2018년 1월 ~ 6월 실적)

서울정민학교, 수도사랑의학교, 서울광진학교 (총 3개소)

+ 대상인원 : 49명

+ 출장횟수 : 3회

쪽방촌 구강보건교육

서울시립병원 연합 나눔 진료 봉사단 활동

+ 찾아간 기관

(2018년 1월 ~ 6월 실적)

시립 창신동 쪽방 상담소(총 1개소)

+ 대상인원 : 24명

+ 출장횟수 : 1회

장애인 치과 치료비 지원 사업

- 장애인 무료틀니/보철지원사업 : 64명 선정
- 장애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 16명 선정
- 저소득 장애가정 치과치료비지원사업 “가장만세!” : 18명 선정
- 중증장애인 전신마취 지원사업 (스마일재단 연계) : 14명 선정
- 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With U” : 9명 선정
- 아동·청소년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세이브 더 칠드런 협약) : 3명 선정

지역사회 연계 사업

하안별이 캠페인

- + 구강건강 약속 서명(원내캠페인) : 324명 참여
- + 장애인 구강질환 예방의식 함양 사업(거리캠페인) : 742명 참여

(2018년 1월 ~ 6월 실적)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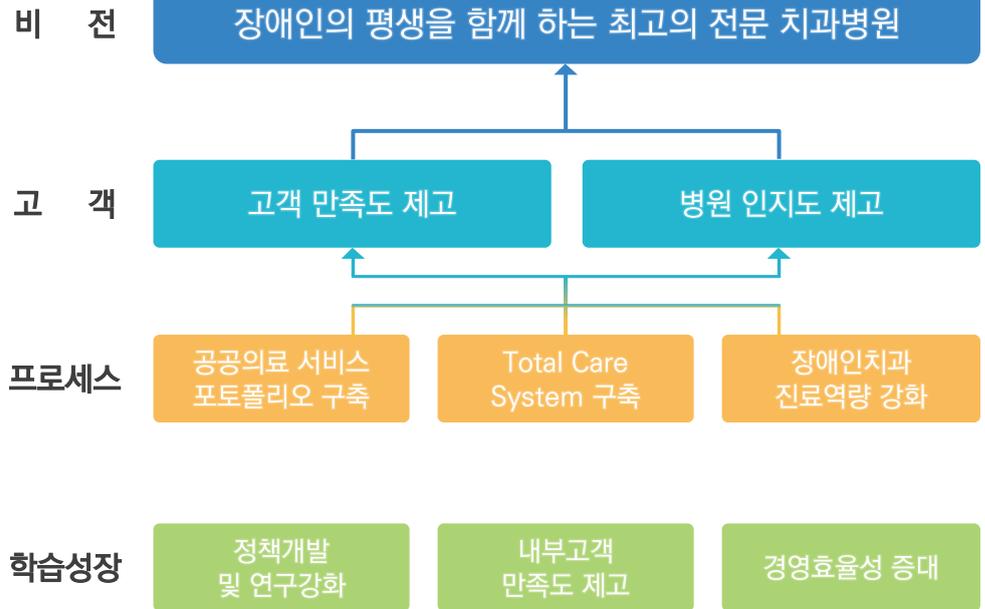
- + 전문자원 봉사 : 6명
- + 일반(학생)자원 봉사 : 64명 / 475회

(2018년 1월 ~ 6월 실적)



SEOUL DENTAL HOSPITAL FOR THE DISAB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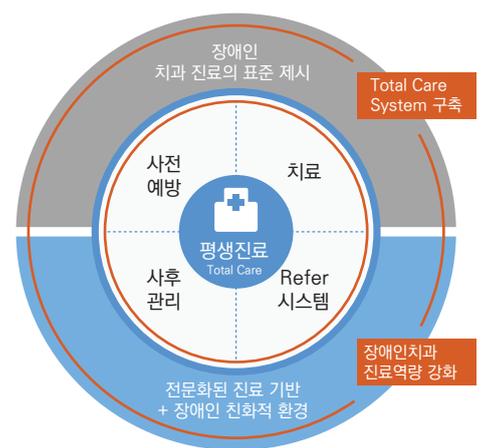
비전 Vision



장애인치과병원 환자



장애인치과병원



상징 Emblem



Emblem의 의미

치아 중에 저작기능에 가장 중요한 어금니를 형상화하여 네잎클로버의 잎을 구성하였으며, 네잎클로버의 의미는 "행운과 행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애인들에게 건강한 치아를 만들어 행복을 되찾아 준다는 의미

후원 안내

“베풀수록 풍요로워집니다. 시간과 노력을 나누어 주세요”

- 전문자원봉사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사 등) : 장애인치과진료 및 이동진료, 진료 보조 등
- 일반자원봉사 (대학생/일반시민 등) : 장애인환자 안내, 중앙공급실 업무보조, 장애인치과이동진료 보조 등

“장애인에게 건강한 치아와 행복한 미소를 전해주세요”



(2018년 1월 ~ 6월 기준)

구분수	김민선	김인선	남정환	백승호	이은영	조정환	황영혜
김나영	김안나	김혜령	문정은	박성욱	송보순	조혜림	황지영
김란희	김영림	김혜정	민경민	박유미	양소영	최유진	
김명진	김영재	김혜지	박문기	박혜미	오병주	최인영	
김미경	김운평	남선희	박성문	박혜진	유혜선	임성진	홍예표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931455 (예금주: 재단법인스마일)

후원금은 저소득장애인의 치과치료비로 사용되며, 스마일재단의 이름으로 연말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병원 층별 안내

- 지하 1층** 세미나실, 탈의실, 차트 보관실, 진료 재료 및 문서함 보관장, 직원 휴게실, 택배 보관함, 폐기물 보관함
- 1층** 출입구(휠체어 전용 출입구 포함), 접수·수납 창구, 전신마취실, 회복실, 의료사회사업실, 임상검사실
- 2층** 대기실, 진료실, 페디랩실, 방사선실, 구강 촬영실, 기공실, 소독실, 상담실, 전동휠체어 충전존, 진료재료 준비실
- 3층** 대기실, 진료실, 페디랩실, 구강 촬영실, 의사 연구실, 상담실, 전동휠체어 충전존, 진료재료 준비실
- 4층** 총무과, 공공의료사업단, 옥상정원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오시는 길



버스

- 상왕십리역 또는 청계벽산아파트 하차 147, 202, 241, 1017
- 도선사거리 하차 110B, 141, 145, 148, 421, 2015, 222

지하철

- 2 호선 상왕십리역 2번출구 도보 10분
- 2 5 호선 왕십리역 7번출구로 나와 3번 마을버스 (성동구 보건소 행 탑승) 보건소 앞 하차

진료 시간

- 진료 방법 예약제 운영으로 예약 필수
- 오전 진료 09:00 ~ 12:00
- 중식 시간 12:00 ~ 13:00
- 오후 진료 13:00 ~ 17:30
- 토요일 09:00 ~ 12:00

감면 혜택

1. 서울에 거주하고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인 이며, 건강보험대상자는 비보험 진료과목에 대해서 30%감면
2. 서울에 거주하고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인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50%감면

장애인 콜택시

- 홈페이지 calltaxi.sisul.or.kr
- 전화 접수 1588-4388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출원

